

생명운동연구모임 3차 모임 정리

- 일시: 2010년 5월 19일(수) 오전 11시 - 2시
- 장소: 한살림 4층 중회의실
- 참석: <김용우>, <유정길>, <주요섭>, <정규호>, <이근행>, <임수진>

'생명평화'라는 말의 기원에 대해

<김용우>

새만금 생명평화선언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 마무리 할 때 나왔음. 그때부터 '생명 평화'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

2000년 초반에 '생명평화'라는 말을 처음 쓸 당시 '생명 and 평화'나 '생명의 평화'나, '생명 평화'라는 논쟁거리 었음. 당시 생명세상은 꼭 평화롭진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생명의 평화'인지 '생명과 평화'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생명의 평화라면, 그것은 생명운동 내에서 해석해 내야 함.

<주요섭>

생명평화는 지리산 생명평화기원제를 통해서 퍼진 것으로 알고 있음. 생명과평화의길에서도 2004년에 생명평화선언을 냈지만, 그 전 해인 기원제 논의에 참여한 적 있음.

공식적으로 생명평화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2001년 지리산 위령제를 통해서 었음. 이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에 지리산 평화결사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창립을 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음.

<김용우>

2000년 전에는 평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음. 우리 사회에 평화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9.11이후임. 9.11이후에 요한 갈통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강좌가 생겼음. 평화학도 소개되고. 박성준 선생이 만나서 평화운동 이야기도 나눔.

박성준 선생을 2000년에 성공회대에서 만났을 때 '평화운동'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음. 박경서, 박성준 등이 '평화학'이라는 강좌도 개설했었음.

그 즈음만 해도 생명과 평화는 붙어있지 않았는데,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생명평화라는 말이 나왔음.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10만 양병설, 이라크전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운동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눔.

2000년 10월 즈음 지리산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었으며, 2001년 1월부터 생명평화라는 말이 나왔음. 2000년 모임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었음.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이 화제가 되면서 위령제 등의 이야기가 퍼지던 시기였음.

<주요섭>

김지하 선생 등이 전부터 작게 해왔음.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오다가 범종교계로 퍼진

것은 9.11이후인 것 같음.

2002년 전의 생명운동은 담론 수준에서 윤희근 이사와 정리한 적 있음

<김용우>

생명운동이라는 말은 80년대 초 문건이 최초임.

<주요섭>

김지하 선생님이 생명운동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맥락 없이 개념적으로만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유정길>

좋은 단어는 쉽게 오염이 됨. 생명이나 평화라는 말도 그러함. 그렇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음.

<정규호>

사회적으로 생명운동은 지고지순하고 아름다운 운동, 죽은 목숨을 살리는 운동, 종교인들의 운동이라고 비취지기도 함. 각성운동, 세계관운동으로서의 영역도 있음.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전혀 다른 의미로 생명운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함.

<김용우>

언어라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퇴적된 것임. 그런 의미에서 생명운동이라는 말을 버리는 것은 맞지 않음. 생명이라는 말이 대중화 되었음. 그렇게 볼 때, 그것을 제대로 끌고 갈 책무는 있지만 용어를 버릴 일은 아님.

오히려 생명이라는 말이 오염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많음. 그래서 논란과 혼란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음. 용어 자체의 문제는 아님.

생명운동의 구체적 움직임들(주체)

<김용우>

원주캠프의 경우 구성원들을 보면, 농촌을 돌아다니며 조직화하던 축이 있고, 태백을 중심으로 한 광산 운동 등 포괄적이었음.

80년대에 고배청년센터, 그린코프 등 일본에 매년 견학단을 보냄. 84년까지 가톨릭 복지관자리에 있던 곳에서 매년 워크샵을 했음. 그러다가 한살림의 태동까지 간 것임. 그 이후에 생명운동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농상생운동 이야기가 나오게 됨. 당시 생명운동이라는 인식하에 한 일임. 캠프 차원에서는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었음.

<주요섭>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실현하기 위해 형태를 갖추었음. 구체적으로 한살림이 그러함. 생명운동의 실천방식으로 협동운동을 찾고, 그것을 지금까지 키워온 것은 훌륭한 일임. 따라서 이것을 생명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일이 아님.

가톨릭농민회는 생명공동체 운동이라고 이야기함. 한살림은 생명운동이라고 계속 써 왔음.

협동운동을 통한 실천방식과 함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한살림 선언을 통한 생명문화운동이라는 말을 사용. 한살림 선언에도 사회적, 체제적 전망이 전혀 없지는 않았음. 사회주의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전망임. 당시는 사회주의를 대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 것은 중요한 문제제기임.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서 생명운동의 사회구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 수 있을 것 같음.

<유정길>

우리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왔음.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공부를 했음. 한살림 선언, 몬드라곤, 자연과학 등을 공부했음. 협동조합과 생태적인 것에 착목하게 된 후 논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이쪽과 만나게 되었음.

생명운동과 정치(자치)운동

<주요섭>

지역자치, 지방자치에 목표를 두고 시작했던 91년도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생명민회가 94년에 발족함.

이것은 의미 있는 자치운동이자 정치기획이라 할 수 있음. 권력정치, 중앙정치 보다 풀뿌리 운동, 분권운동에 초점을 맞춤.

95년도 선거가 중요함. 이창식 선배와 연결되면서, 지방 자치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구상해 보고.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환호하면서 반겼음.

<유정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것이 감동적이었음. 지방자치운동을 토대로 생명의 입장도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생명민회 활동을 했음.

생명운동과 문화운동

<김용우>

84년에 생명 사상을 공동체 문화로 풀어낸 '공동체 문화'라는 책이 나왔음.

<주요섭>

그것을 넓게 보면 생명문화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는 민중문화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임.

<김용우>

민중문화운동을 공동체 운동으로 풀었기 때문에 생명운동이라고 볼 수 있음. 공동체, 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

<주요섭>

7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전통이 계승되면서 공동체 문화운동으로 꽃을 피운 것이라고 봄. 그러나 이후 사회주의 문화이론이 들어오면서 공동체 문화운동이 밀려서 없어졌음. 맑스주의 문화이론 쪽 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동체운동은 봉건적인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되어

버렸음. 사회주의 이론 운동과 부딪혀 밀렸음.

<김용우>

스스로 생명문화운동이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들이 거기에 다 등장함. 신명, 두레 등. 그래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음.

<주요섭>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이론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온정적,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됨. 그러던 것이 생명문화포럼 등으로 나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에 진화가 없었다는 것임.

<김용우>

90년대 중반, 95~96년에 문화운동 진영의 성찰이 시작됨. 문화패가 시골로 들어가기 시작함. 황선진 선생이 강화로. 우금치도 그때 즈음 등장. 문화운동 진영에서 이것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음. 93년에 전국을 순례하는데, 선배들은 그게 되겠나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시골로 내려 갔음. 횡성에도 문화패가 들어가고. 생명문화운동이라는 말을 썼음. 동구사회주의 멸망 이후 두 가지 흐름이 생기는데, 그냥 계속 가자는 것과 성찰하는 쪽. 그리고 성찰 쪽에 있던 사람들이 두 패로 갈렸는데, 도시에서 운동을 풀면서 시민사회운동으로 활성화 되고, 하나가 생명운동 진영의 흐름으로 왔음.

<주요섭>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고 진화가 안 되었음. 7, 80년대를 복권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이라 지하 선생도 답답해 했음. 생명문화운동의 지평을 넓히거나 하지 못했음.

<이근행>

90년대 중반에 이미 문화 쪽이 제도에 포섭되었음. 마당놀이도 나오기 시작하고. 생계는 그 쪽에서 하고 발전은 안 되었음.

<주요섭>

문화계가 진보 쪽으로 들어가고, 공동체적 문화를 가진 문화계는 낡은 것처럼 되었음. 비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엄두도 못 냈고 형편도 안 되었음. 그런 점에서 보면 깊은 늪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음.

<정규호>

생명운동의 흐름과 전통을 가지고 문화영역에서 이어진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예술 부분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함. 최성각 소설가 등.

<주요섭>

생명의 관점에서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 김지하 선생 등에서 영향 받은 사람들이 많았음. 하지만 최근에는 시들해졌음. 지금 환경운동이 시들한 것처럼.

<정규호>

최근 4대강 관련해서 문화 예술가들이 생명에 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함.

<김용우>

이철수 관화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음. 가장 전환에 선, 이론적 근거도 분명한 사람이라고 봄.

김영동, 이철수, 김민기 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음.

<주요섭>

생명민회에서도 울려학회 이름으로 같이 일을 했었음. 김지하 선생이 조직한 문화예술 쪽 네트워크가 있음. 그것이 지금 이어지 않고 있음.

<김용우>

유연복 씨도 만나봐야 할 것 같음. 이철수와 두 분은 민예총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생명에 대해 이야기 했던 사람들임.

백창우, 홍순관 등이 노래운동 쪽에서 그 흐름을 받았음.

<주요섭>

최근에 민족문화 작가회의 김형수 같은 사람들이 생명, 생태 쪽으로 많이 변했음.

문화운동 사람 중 하나를 멤버로 함께하면 좋겠음.

<이근행>

90년대 초, 핵폐기장 문제가 생기면서 환경운동연합과 마당극 연극팀이 전국을 다녔음. 그 팀 중 몇 명은 영화나 TV쪽으로 갔음. 연극쪽은 김민기 선생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함. 문화판을 아는 사람은 유수훈, 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 수 있음.

<김용우>

이것을 정리하면서 빠지면 안 될 것이 있음. 안치환의 노래에 생명이야기가 들어가는 시점이 있음. 무의식적이지만 생명사상이 문화 쪽에 흘러들어가는 부분을 짚어 주어야 할 것 같음.

예를 들어, 생협운동이 사회 현상인데, 처음 시작은 명백히 생명 사상에 근거해서 시작한 것임. 처음 57개 조합 중 원주에서 38개가 있었음. 모두 생명사상에 근거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원주 쪽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음.

85년 이후 생협운동은 명백히 생명운동에서 시작했으며, 변형되기는 했지만 생협 운동, 유기농업 운동이 다 생명사상의 영향을 받았음.

생명운동과 농민운동

<정규호>

가톨릭 농민회와 어떻게 연결되고 단절되었는지?

<이근행>

정농회가 먼저인데, 정농회는 풀무학교에서 시작했음. 일본 애농회에 감명 받은 사람들이 정농회를 만들었음.

<주요섭>

기독교 농민운동을 했던 분들이 만들었음.

<김용우>

원주에서 유기농업 운동이 시작한 것이 82, 3년임. 이전에 정농회가 있었지만 확산을 가져온 것은 한살림 쪽이 움직이면서임.

<주요섭>

정농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유기농업을 확산 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의 과제가 농민 운동이었음. 농민을 조직해서 정부랑 싸우고 생존권을 높이는 것이 과제였고, 농업 자체와 관한 것으로 농민의 삶에 대한 책임도 있었음. 해서 농민운동에 많은 역량을 쏟았음. 기독교 농민화를 만들고 이들 멤버들이 전농을 만들었음. 원래 계셨던 분들은 기농, 전농에 모든 걸 주고 정농회는 위축이 되었음.

<이근행>

김영주 회장님 강연 중에, 70년대 처음으로 생존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함. 전에는 권리,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생존권이라는 이야기를 했음.

<주요섭>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살림 운동의 초기 과정이 전농과는 다른 흐름으로 사회운동은 약하고 유기농업 운동에 몰두한 것으로 보임.

한살림운동은 그 전통으로 보자면 사회화시키는 것 보다는 유기농업 쪽에 강함.

<김용우>

각자 다르게 갔음. 기농은 기농대로, 전농은 전농대로, 가농은 가농대로 갔음.

<이근행>

정농회도 그렇게 감. 사회적인 역할은 전농 등에 주고 농법만 남았음. 네트워크 기능도 적어 짐.

<유정길>

가톨릭 농민운동이 전향한 것에 대해 짚어야 함. 중요한 부분임. 상당 부분 많은 멤버와 생산자들이 생명운동의 큰 자산이 되고 있음.

생명운동과 노동운동

<김용우>

여성노동자회에서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음. 제정구 선생, 최수자 선생과 연결 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연구모임의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주요섭>

생명운동 '선언' 작업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이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출판물로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듦.

다음 모임에서는 연구방법론과 체계를 정해보면 좋겠음. 예를 들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생명문화운동: 영성, 예술, 교육', '생명정치운동: 아직 영역이 분명하지는 않음', '생명경제운동: 귀농, 공동체, 생협 등'.

<유정길>

운동을 분야별로 나누어 초고를 쓰고 함께 검토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음.

다음번에는 체계를 잡고 집필진을 생각해 보자. 우려스러운 것은, 역사를 집필하면서 하나로 묶으면 안과 밖이 구분되면서, 나머지가 배제 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음. 나도 활동하는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김용우>

인식론적 확장 뿐 아니라 실천적 확장도 있음.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법이 많을 것 같음. 무의식속에, 대안학교 교사들도 생명사상에 기반 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음.

생명사상이라고 했을 때 어느 범주까지를 말하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 되어야 함. 사상적으로는 다석, 함석헌, 무위당 선생님들이 있고 박이문, 이기상 선생도 있음.

<주요섭>

사상적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임. 입장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해서 괴로운 부분이 있음. 그렇게 하려면 녹색평론과 김종철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고, 신과학운동 정신세계사 이야기까지 해야 함.

<김용우>

이상국 대표, 이병철 선생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음.

<유정길>

연구소에서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이야기 듣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음.

다음 모임

- 일시: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장소: 4층 회의실
- 안전: '생명운동사' 정리를 위한 체계 및 방법론 검토와 역할분담에 대해